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① ; 남산도서관 개관 80주년 기념학술발표회 · 비블리아학회 학술발표회

남산도서관(관장 황낙헌)과 비블리아학회(회장 유재옥)가 남산도서관 개관 80주년을 기념하여 10월 7일(월) 공동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념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는 지식기반사회의 공공도서관으로, 제2주제는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봉사라는 주제로 발표되었다. 먼저 제1주제에서는 정동열(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정교수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력의 필요성과 이론적 연구, 국내외 도서관 협력 현황과 문제점, 도서관 협력에 대한 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서관 관련 정부 부처간의 연계 부족과 정보화에 대한 통합관리체제 결여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둘째, 도서관 정보인프라 기반의 지속적 확충 및 개발 요구, 셋째, 도서관 정보화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낙후, 넷째, 도서관 정보화 관련 행·재정지원 체제 구축, 다섯째, 학습·교육·연구·평생교육에 관한 개별 도서관 정보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어 협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식기반사회에서 도서관이나 학교가 지역이나 국가의 정보보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윤영민(한양대 사회학과 교수)은 “정보사회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로서, 첫째, 지식의 보존에 대해 말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전통적 역할 중의 하나는 출판물 수집과 보존이므로 자료보존이라는 사명과 관련해서 지역공공

도서관의 역할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교육 및 조사 활동의 지원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커다란 전환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보편적 접근의 구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예로 들면서 그들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공동체적 교류와 여가의 공간에 대해서는 가족이 함께 가볍게 나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이원숙(일본 쓰꾸바대학 박사과정)은 “아시아 인터넷 공공도서관 구축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첫째, 아시아 인터넷 공공도서관 구축은 다언어 서브젝트 게이트웨이의 개발을 위해 협력적 메타데이터 제작, 둘째,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메타데이터의 제작이 이루어질 경우에 협력 작업을 원조하는 소프트웨어는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셋째, 언어 중립적인 주제어와 그 주제어를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넷째,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수정 등이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한 더욱 효과적이고, 유용한 다언어 정보 접근 환경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아시아인들의 협력이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제2주제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 봉사”에서는 먼저 서혜란(신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이 “공공도서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대해 발표하였다. 공공도서관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성별 면에서는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20대 이하의 젊은 고학력자와

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공공도서관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공공도서관의 기존 이용자로서 다른 목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해서 우연히 서비스를 접하게 된 후 자주 이용하는 고정 고객이라고 하면서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주변을 확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른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무료라는 점을 가장 큰 매력으로 생각하지만 전문사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첫째, 공공도서관은 스스로 찾아오는 이용자에게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잠재적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서 인터넷 소외계층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이용자가 다른 경로를 통한 인터넷 접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김지봉(경기도립과천도서관 정보봉사과장)은 “지역사회기관의 관계 개선 및 지역주민 참여증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첫째, 국민보다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성숙된 문화의식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도서관은 학교 박물관, 미술관, 기록보존소와 같은 문화기관, 문맹퇴치 프로그램,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 등과 같은 조직들과 공식적 연계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기관과의 상호협조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성숙의 차이, 문화복지 기관들의 영세

성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 봉사의 계획”에 대해서는 차미경(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이 발표하였는데, 공공도서관 봉사의 방향은 도서관의 여건과 지역사회의 환경, 지역주민의 요구를 기반으로 개발 제공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봉사의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기관 및 타 도서관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이 요구되어야 하고, 원격이용과 비용 효과 문제 등 관련 정책수립 등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 봉사의 필요성과 개선에 대한 요구와 가능성은 많다고 강조하면서 공공도서관이 처한 환경에 따라 기업 및 취업 관련 봉사가 필요한 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특화된 봉사를 개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알림

도서관문화를 통해 행사소식을 상세히 알리고 싶은 도서관·단체·개인은 도서관문화 편집실로 행사보고서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원고 매수는 5~10매 이내로 해주십시오,

* 전화 : 02-535-4868

* 전송 : 02-535-5616

* E-mail : klanet@hitel.net

* 주소 : (137-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한국도서관협회”

* 담당 : 심요정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② ; 한국문헌정보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회

한국문헌정보학회(회장 이은철)는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7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먼저 김정곤(경성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이 “이용자 중심의 PDL(Personal Digital Library) 시스템 기능 분석”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 교수는 PDL 시스템에 대해 입수 정보자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 기존 시스템의 입수 정보자료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기능 미비, 보관 관리되고 있는 자료의 즉시적 탐색의 어려움, 보관된 자료의 향후 교과목과 연관성 문제, 자료의 최신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PDL 시스템은 학습의 지원에 있어서도 교과과정의 지식활동 및 학술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학습 및 개인활동의 지원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료의 입수 경로를 다양하게 지원해야하고, 다양한 유형의 입수자료가 처리 가능해야하며, 아날로그 자료의 경우 디지털자료로의 변환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지훈(계명문화대학 문헌정보과 교수)이 “참조연결(Reference Linking)을 위한 인용정보 자동추출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 교수는 인용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먼저 정보를 추출해야하는데, 정보 추출은 규칙에 기반하여 자연언어를 처리하는 분야로서, 짧은 자연어 텍스트에서 미리 지정된 종류의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였다. 참조연결을 위한 인용색인을 자동으로 만들기 위해, 온라인 문서에서 참조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학술 논문을 표제, 저자 등과 같은 이용한 문헌의 메타데이터, 참조연결점과 참조문장을 포함하는

본문 참고문헌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템플릿 마이닝이라는 것이 있는데, 템플링 마이닝은 인식 가능한 패턴을 이용하여 텍스트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자연언어처리기법으로, 정보추출시스템은 텍스트가 미리 지정한 템플릿과 일치하면 그 템플릿과 연관된 지식에 의해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인용색인은 거의 수작업으로 인쇄 출판된 학술잡지를 대상으로 만들어왔으나, 최근 전자출판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형태의 학술문헌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인용논문과 인용된 문헌을 상호 연결하여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참조연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인용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참고문헌에 대한 엄격한 표준인용 규정을 만들어 부과하거나, 자료형태에 따라 각 인용형태를 위한 표준 템플릿을 준비하여 저자가 이를 따르도록 한다면 효과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종성(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강사)은 “미국 학교도서관 운영의 원리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 강사는 미국 학교도서관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첫째, 전임 사서교사 배치, 둘째,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현장에서의 주도성 확보, 셋째, 기본 요소 강화를 위한 가용 에너지 집중을 들었다. 미국 학교도서관의 현장도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싸우면서 효과적인 운영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우리 학교도서관도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붙들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전문, 전략을 세워 실천적으

로 일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소연(계명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이 “로그 분석을 통한 인터넷 검색엔진 이용자의 웹문서 검색 행태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박 교수는 웹 검색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검색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웹 검색 서비스 네이버에서 생성된 검색 트랜잭션 로그들 중 일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첫째, 이용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 이용자들의 검색 과정에 대한 만족도 등의 분석을 위해서는 실험이나, 인터뷰, 관찰 등의 별도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둘째, 이용자들의 보다 현실적인 검색 성향 분석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수집된 검색 트랜잭션 로그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새로운 세션 정의 방법의 개발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색 트랜잭션 로그 분석을 이용한 국외 연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 웹 검색 형태의 특수성을 밝혀내는 것도 향후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응봉(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이용자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사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로그 분석, 온라인 설문, 발견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충남대학교 XML 기반 전자도서관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웹사이트는 로그분석, 온라인 설문조사, 발견 평가를 적용한 사용성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웹페이지에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웹사이트의 품질향상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대처하고, 변화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재(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는 “Management Skills for Academic Library in the Digital Age”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강사는 학습조직은 조직 내 지식의 생산, 수집, 접근, 배포가 원활하고 신지식과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 사고방식, 문화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지식경영은 조직의 사명 및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해 조직 전체에 걸쳐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현재 대학도서관의 경영도 조직의 변화에 따라 참여경영, 팀제의 활용 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객지향성 서비스를 위해서는 도서관 벤치마킹과,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한 마케팅, 전자뉴스레터 등을 통한 도서관 PR 등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는 유연성을 가지고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도서관·정보센터의 전통적·내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서직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며 새로운 경영과 서비스에 대해 개척해 나가는 일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장덕현(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비판적 패러다임의 모색”에 대해 발표하였다. 장 교수는 문헌정보학에 있어서도 지식·정보 현상이 지니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비판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비판적 패러다임의 모색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패러다임에서는 지식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고, 지식의 대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③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관련 국제 심포지엄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선현택)은 10월 14일(월) 대강당에서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관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상완(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국립디지털도서관(NDL) 프로젝트 연구책임자)이 “디지털 시대의 국립디지털 도서관 건립계획 기본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였다. 한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정보자원의 관리를 주도하고 관장할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프로젝트의 내용과 그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박소연(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국립디지털도서관 성격, 기능, 조직인력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목적을 논하고,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제안하였고, 또한 3관 체제(본관, 학위논문관, 국립디지털도서관)에서의 역할 분담, 인력 및 조직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전통적인 인쇄매체와 전자매체, 그리고 다른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통합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obert Allen(미국 매릴랜드대학 교수)은 “Digital Libraries and Knowledge Management”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디지털도서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조직내의 정보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지식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OAI(Open Archive Initiative), LOCKSS 등과 미래의 정보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보의 이전, 에물레이션, 캡슐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와 OAIS의 데이터모델로 내용정보, 보존기술정보, 패키지 정보, 기술정보로 구성된 정보패키지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보존을 위한 모델로 METS(Metadata Encoding and Transmission Standard)를 제안하기도 했다.

Machiko Nakai(일본 국회도서관)는 “Digital Library Services of the National Diet Library”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일본 국가도서관으로서의 국립국회도서관의 성격과 역할을 설명한 후, 최근 칸사이관의 개관에 이르기까지 국립국회도서관이 수행해 온 디지털도서관 관련 각종 프로젝트를 시기별로 나누어 회고하였다. 2002년 현재 진행중인 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현황과 시행중인 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일본 내의 전반적인 디지털도서관 현상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서 국가도서관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백준홍(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은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물 방향설정”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21세기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정보의 효율적인 보관과 이용은 범세계적인 추세라서 디지털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확산되는 디지털정보자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상되는 장서 수장고의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세계의 지식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유럽과 미국, 일본의 도서관을 방문하

여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공간운영체계와 그에 따른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디지털 도서관의 건축적인 방향과 공간형성 의미를 검토하고, 둘째, 문헌정보에서 분석, 검토한 결과를 기초로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기본기능과 그에 따른 기능적 공간구성을 위한 주된 공간조건을 파악하고, 셋째, 이를 기초로 가장 한국적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서관 건립을 위해 중앙도서관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시설물 이용의 행위 활동을 사회조사(POE)하여 세밀한 공간 형성 조건을 분석,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넷째, 위에서 유추한 공간들을 주어진 대지 위에 보다 기능적으로 배치하고 계획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이용성을 분석,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상과 같은 자료를 기초로 기능적·경제적·자연 친화적이면서 장래증축을 수용할 수 있는 예술적인 디지털 도서관(12,000평 규모)을 현상설계(competition)를 통해 건축하도록 제안하였다.

James von Klemperer(AIA, Kohn Pedersen Fox Associates PC)는 "Effective Architecture Design in National Digital Library"에 대해 발표했다. 오늘날의 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인구의 급증과 함께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고 도시는 질적·양적으로 과대팽창을 계속하고 있으며 경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회·경제·문화의 질적·양적인 변화로 인해 물리적 시설의 사회적인 수명이 단축되었고, 개인 및 소수집단의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으로 생산방식이 공업화, 조직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축 디자인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조직될 수 있는 건축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세계속에서 국제경쟁력

이 있는 고품격의 건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립디지털 도서관과 같이 공간계획의 규모와 내용이 복잡하고 상호 연관적이며 미래에 대한 증축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유기체적인 건축에서는 공간의 창출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변화된 정보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체계화된 건축계획과 설계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백우진(미국 매사추세츠대학 교수)은 "Managing Electronic Resources for Digital Libraries: Information Technology Perspective"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인터넷의 빠른 발전과 인터넷 자원의 증가는 시간과 전문성을 덜 요하는 더블린 코어와 같이 더욱 단순한 형태의 메타데이터 표준을 요구한다면서 디지털 도서관은 계속 증가하는 전자 자원과 동시에 현존하는 수백만의 MARC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주요 메타데이터 표준과 표준들 간의 크로스를 다루고, 수동 메타데이터 생산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고안된 자동 메타데이터 생산 수단을 고찰하였다.

Jane C. Prey(미국과학재단)는 "The NSF NSDL(National Science Digital Library) : Opportunities for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미국과학재단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정보기술연구 및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특히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교육관련 디지털 도서관 프로그램(STEM)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STEM을 통한 디지털도서관의 구성요소 및 향후 나가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④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10월 15일(화) 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박홍석(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화팀장)의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황과 발전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박 팀장은 대학도서관의 정보자원 및 전문인력의 부족, 정보의 체계적 관리 부재 등이 대학도서관의 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어 양질의 정보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하면서 이는 도서관과 동떨어진 교수·연구활동, 취업 위주의 학습활동, 열람공간 중심 이용, 대학자료 공동이용 미흡 등 저조한 도서관 이용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대학도서관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에 따른 낮은 투자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복합적인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양질의 학술정보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둘째, 이를 대학도서관 협력체제를 통해 공유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며, 셋째,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며, 넷째, 무엇보다 먼저 장기적으로 대학도서관이 자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방법은, 해외 학술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해외 학술DB 확충, 대학생산 학술정보 통합관리체제 구축, 대학도서관 인력 전문화 강화, 전문대학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은 지식의 보고이자 지식 생산의 원천이며, 인재 양성의 모태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국가 시설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은 황호진(교육인적자원부 정책분석과장)의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안)”에 주제발표가 있었다. 황 과장은 대학도서관의 비전을 지식강국 구현을 위한 국가의 핵심 기반시설화라고 하면서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부속시설에서 핵심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열람실 기능 중심에서 지식정보자원관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첫째, 대학도서관의 기능 확대·강화, 둘째, 교육·학술연구 정보·자료 확충, 셋째, 도서관간 연계체제 구축, 넷째, 산학협력 및 대학·지역사회 협력의 거점화, 다섯째, 조직, 인력, 행·재정지원 기능 강화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 고등교육·연구의 질 제고, 도서관 중심의 학습 지원 서비스 향상, 학술정보 출판 시장 활성화 유도, 도서관 중심으로 지식정보의 유통 활성화, 지역주민 평생 학습 진흥, 지식기반사회의 기반 구축을 꼽았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먼저 김종길(경북대 중앙도서관 관장)이 도서관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 강구를 위해서는 대학 및 대학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현행 도서관 관련 법령들을 먼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이 공부방으로 전락한 것은 교수의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 방식과 도서관의 수서정책이 관련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활성화 되려면 대학도서관에 대한 공공투자가 적극적이어야 하며, 대학도서관장의 전문성 강

화, 전국대학도서관협의회 구성, 대학도서관 관련 조직, 인력, 행·재정지원 기능 강화를 들었다.

성기주(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해외 학술 DB 도입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전국대학도서관 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협의회가 없어서 도서관이 발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의 도서관 협의회 등이 예산·인력 부족과 임의 조직으로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지원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다소 강제성이 있더라도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위논문 공유망 구축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하여 대학의 간행물을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도서관장의 전문직화에 대해서는 교수의 보직제 보다는 전문사서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서직이 열심히 일하면 관장까지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서직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준식(계명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대학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수의 강의와 도서관 자원이 연계되도록 하는 학습·강의지원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도서관 평가체제 확립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현재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도서관평가사업과 대교협에서 주관하는 대학종합평가에서의 도서관 부문 평가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평가기준도 합리화 시켜야 하며, 평가 방법도 현재와 같은 선 경쟁 후 지원의 방식이 아닌, 선 지원 후 평가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

안도 고려되어야 하며, 정부나 국가기관은 실무적인 사안에 개입하기보다 정책적인 결정과 지원을 하고, 개별 도서관들에 대한 서비스의 중개자 또는 지도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발전방안을 구체화시킬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백항기(숙명여대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정보팀 부장)는 현 대학도서관의 문제점으로 도서관 정책의 부재와 행정체계의 미정립, 인적자원, 장서개발, 보존 및 이용, 도서관간 상호협력체제 미흡, 표준화 관계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제언으로는 협력망 구축을 위한 단위 도서관의 역할 모색, 도서관행정의 전문화 추진, 지식경영시스템으로서의 도서관 구현을 위한 시책 수립, 사서의 전문성 제고방안 확립, 저작권법 보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제도 개선을 들었다.

이중요(서울대학교 도서관 사서사무관)는 해외 학술DB 확충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 해외학술데이터베이스 협상 전담기관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최선의 협상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담기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본장서 및 자료확충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대학도서관은 대학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장서는 갖추고 상화대차용 자료와 대상기관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장하고 있는 장서량과 상호대차 이용량이 비례하고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한 외국의 학술정보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장단기적인 국가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